



제 27 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보고서

장소 :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머큐어호텔, 마호로바호텔)

기간 : 2024. 12. 18 ~ 12. 21

학과 : 상담심리학과

이름 : 이 **

● 1 일차 [삿포로 맥주 박물관, 교류 회의실]

아침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소집한 우리학교 팀들은 (교수님 포함 26명) 가장 먼저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로 사진을 찍은 후 각자 짐을 붙이고, 10시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팀들은 삿포로 맥주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869년부터 시작된 공장으로 독일의 뮌헨에서 기술을 들여왔고, 개척사의 사업은 홋카이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75년 일본에서 물이 가장 맑은 삿포로에서 맥주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1877년 삿포로의 맥주가 첫 출하를 하였고, 1903년에는 삿포로 맥주가 도쿄를 진출하면서 1977년 생맥주 시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맥주의 역사공부를 하면서 155년의 역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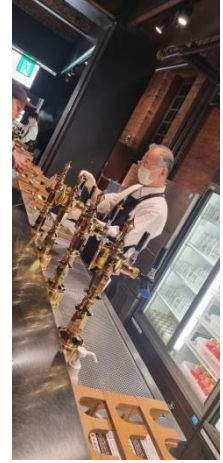
탄생시킨 맥주의 맛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모든 견학을 마치고 나면 무료시음을 진행하고 있어 궁금했던 맥주의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삿포로 맥주 맛과는 다른 쓴맛이 강했습니다.



[맥주제조통]



[맥주 원료]



[무료시음]



[박물관 외관]



[맥주제조 후 담는 용기]

박물관 견학이 끝나고 우리 팀은 호텔로 가서 가볍게 짐을 풀고 마련되어 있던 회의실에서 각자 소개와 여행의 취지로 소통을 하며 저녁식사를 마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 2 일차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오타루 운하, 오이타역 일루미네이션]

아침 조식을 먹고, 9시30분에 집결하여 다음 장소인 시로이코이비토 파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하얀 연인이라는 뜻으로 초콜릿 공장의 제조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야외 공원은 초콜릿의 달달함처럼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건물외관은 유럽풍이었습니다. 삿포로를 대표하는 명과지로서 사진을 찍기에도 너무 예쁜곳이 많았습니다.



(건물 외관)



(선배들과 함께)



(초콜릿 공장 내부 - 제조중)



(동화속 같은 분위기의 내부)

점심식사 전 약간의 시간여유가 생겨 삿포로의 가장 오래된 시계탑을 둘러 단체사진을 찍고 식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삿포로의 가장 유명한 오르골 공방이 있는 오타루 운하로 향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오르골의 역사가 오래전 프랑스 에펠탑 건립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1868년~1926년까지의 홋카이도 상업 및 교역이 중심이 된 곳으로 운하의 주변에는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운하의 모습을 역사의 빛으로 물을 들인 듯 했습니다. 맥주의 기술은 독일에서 들어오고, 프랑스의 명물을 기념하여 오르골 공장을 만들었던 것을 보니 그 시대 일본은 유럽과의 외교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운하에서 오르골당까지 30분정도 걷는 길은 상점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았어도 시골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르골 공장 및 베네치아 미술관, 모든 높은 건물들이 유럽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오래되었다기 보다 최근에 건설된 것 같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타루 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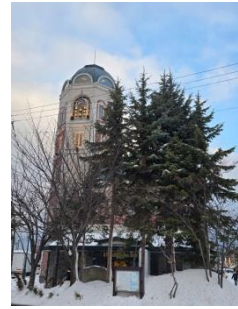
[상점]



[오르골당 외관]



[오르골당 내부]



[오르골 공장]

저녁식사 후 오이타역 근처에 일루미네이션이 있어 사진을 찍고, 역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본 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이타역 일루미네이션]

● 3 일차 [다테지다이무라, 우스잔 로프웨이]

아침 9 시에 집결하여 다음 목적지인 다테지다이무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그 시대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 이였습니다. 무예공연과 오이란 쇼를 관람하면서 그시대의 사무라이들과 귀품있는 여자들의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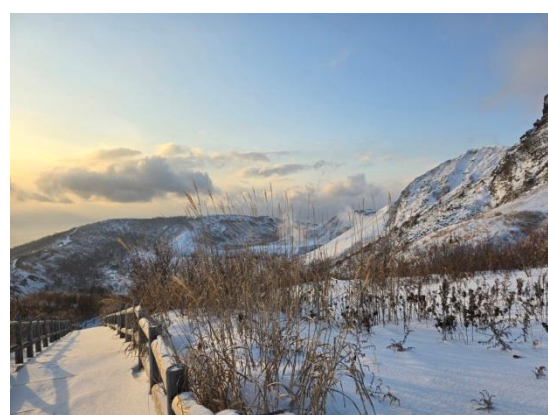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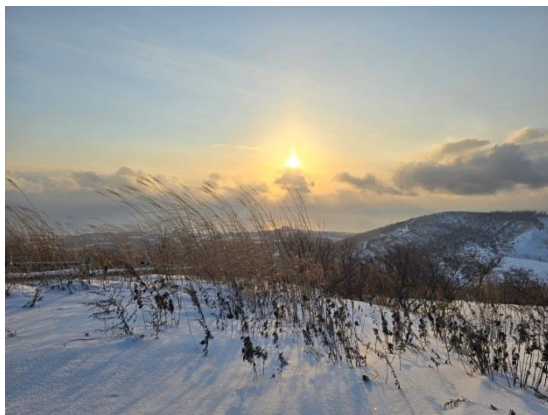
다음으로 향한 곳은 100 년동안 4 번의 화산으로 산이 만들어진 우스잔으로 향했습니다. 이 곳은 활화산이라 그런지 산 중간중간 수증기가 품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프웨이(곤돌라)를 타고 산 정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로프웨이에서 내리자마자 보여진 설경은 겨울왕국에 온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어 너무 아름다웠고, 마치 얼름성에 온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오래전 보리밭이 있던 곳에 화산재가 덮여 또 하나의 산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즈잔 정상 초입]



[화산이 터진 분화구]



[산 정상의 노을]

● 4 일차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마지막 일정 하나를 남겨두고 우리 팀들은 9시에 집결하였습니다. 호텔에서 멀지 않았던 노보리베츠 지옥계곡을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유황냄새가 진했습니다. 화산이 터진 움푹 파인 분화구에 온천수가 용출되는 곳 이였습니다.

지난 밤 호텔에 있던 뜨거웠던 온천수 역시 이곳에서 흘러 나온 온천수

였습니다. 광대하게 넓은 이 곳에서 나온 온천수는 일본에서도 최고로 여겨진다고 현지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산책로를 걷다가 우연히 사슴뿔이 멋진 커다란 야생사슴까지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후 우리 팀은 1927년에 설립된 돈가스 가게에서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신치토세 공항으로 향하며 일본 삿포로와의 여운을 남긴 채 비행기를 탑승하였습니다.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온천수가 나오는 곳]

● 소 감

일본의 여러 도시를 다녀왔지만 삿포로는 처음 이었고, 이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다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와 또 다른 느낌의 일본 이었고, 러시아와 가까워 무역이 활발할 수 있었고, 건축양식 또한 외교의 영향이 컸던 도시로 굉장히 현대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다른 도시에 없었던 트램도 다양한 외교활동으로 인해 만들어 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개방적인 이미지의 도시였고, 유럽풍의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가는 여행이었기에 설레임 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기소개를 통해 각자의 일상을 이야기 하면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오게 된 동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생활의 영역과 색깔은 다르지만 도전욕구와 열정만큼은 서로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2일차부터는 여행을 맘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 해 주신 교수님도 너무 좋으셨기에 저는 교수님의 팬이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개인적인 목표까지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한가지. 첫 날 자기소개를 했듯이, 마지막 날은 여행에서의 느꼈던 부분들과 학교를 위한 모두의 대화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즐기기만을 한 여행이 아닌 우리 모교에 관한 발전적인 대화를 통해 앞으로 학우들이 행해야 할 마음가짐을 서로 나누고 볼 수 있는 일정이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학우들과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소중했기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